

# 진전 없는 여야...靑, 宋·趙 임명할 듯

### 우원식 야권 순회하며 설득·민주, 추경 시급성 호소

### 3野 “임명 철회” 강경...靑 “추경 위해 거래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을 진행하면서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강경한 입장이 여전, 좀처럼 협상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오히려 정국 경색이 심화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과 직·간접적인 개별 접촉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뺀 야3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를 모두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역

사상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국회의 복원을 원했던 적은 없었다”면서 “이런 대통령의 진정성이 야당에 전달되면 야당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및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나머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 3당은 “임명 강행시 7월 임시국회는 파국”이라면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최종담판 시도가 무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공세는 자제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8월 국회는 보통 결산 국회”라면서 “18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되지 않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야당 측에서 합당한 철회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없다면 추가경정예산

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설과 관련 “조 후보자가 장관직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전 회동을 갖고 순방 외교 성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정부 여당이 조금 더 큰 책임으로 국가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고 지적,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

# 국민의당 달아오르는 당권경쟁

### 천정배·정동영·문병호 출마 의사...황주홍·최경환 등 고심

국민의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 열기로 확정하면서 당권경쟁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위기에 처한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적인 전당대회가 치러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정배 전 대표는 12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대표가 되겠다는 결심을 이미 했다”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다만 이유미씨 사건으로 당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마당에 제가 출마선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고 다닐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상황을 봐서 당원과 국민께 곧 저의 결심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 의원은 지난 11일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위기 극복을 위해선 돌파력이 있는 제대로 된 장수가 필요하다.

이들 외에도 황주홍·이동섭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당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경환 의원, 김철근 구로갑 지역위원장, 정호준 비대위원 등도 안팎의 권유로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 일각에서는 ‘문준용씨 취임 특별 제보조작’ 파문이 진정된 이후 전당대회를 열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패배 이후 계속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고, 당의 진용을 새롭게 꾸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한다는 분위기에 묻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기애애’ 순방 성과 설명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5부 요인에게 미국, 독일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오전 간담회를 하기 앞서 차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문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 추미애 “국민의당 꼬리 자르기 실패”

### 이준서 구속에 공세 높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내외의 자중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추 대표는 12일 대전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구속과 관련,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추 대표의 강경 대응에 대해 당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관 후보자 임명과 추경 등을 놓고 물 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야 담판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은 추 대표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했고, 지난 11일 열린 중진연석회의에서도 딱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라도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취합됐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 “추미애 대표가 과한 표현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서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은 빨리 문을 닫아버리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추 대표의 ‘마이웨이’ 고수에 중진 의원들도 중재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장관 후보자 임명, 추경,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추 대표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

# 宋·趙 공조에 ‘문준용 특검’까지...연대 넓히는 3野

### 특검법 공동 제출기로...정국 파행 장기화 가능성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로 공동 전선을 구축한 데 이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 특검법으로까지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야 3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 없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현안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특검 문제까지 연계하기로 해 정국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지명철회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12일 현재 고수

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일 “협치 복원은 지명철회뿐이다.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 운영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사퇴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전날 ‘송·조 후보자 절대 불가’ 의총 내용을 이날 다시 언급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원만한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임명 철회를 다시 압박했다.

바른정당 역시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커녕 공무원 자격도 없다”면서 “두 사람을 모두 지명철회하지 않으면 꼬인 정국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지명철회를 요구

하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임명 연기라는 핑수를 부리며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미덕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 3당이 인사청문 문제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및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법을 공동 제출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한층 냉각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야 3당이 모두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미 다른 두 당은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저희는 성안이 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정의당 이정미號 출항...민주열사묘역 첫 행보

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가 12일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의 민족민주열사 묘를 참배하는 것으로 당선 후 첫 활동에 들어갔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 묘역 등을 돌아본 후 “정의당이 더 낫게 많은 분과 연대하고 그분들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대표는 전날 동시당직선거에



서 7172표(56.05%)를 득표, 5624표(43.95%)를 얻은 박원석 전 의원을 꺾고 심상정 대표를 잇는 정의당의 차세대 대표로 당선됐다. 이 신임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식을 갖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모텔 급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수준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전체 리모델링, 7월20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가능,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7억 (용자 8억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 무인텔

### 엘도라도 리조트 콘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3동), 객실 52개
- 리모델링후 연 순수익 3억 이상 가능
- 온천지구 내 “직업테마파크”등 600억 투자 예정
- 시세/감정가 - 60억
- 매매 - 42억
- 상담문의  
H.010-6838-1230